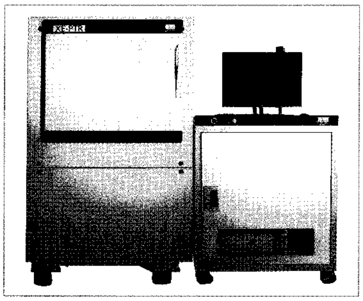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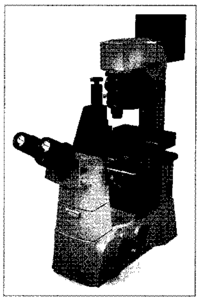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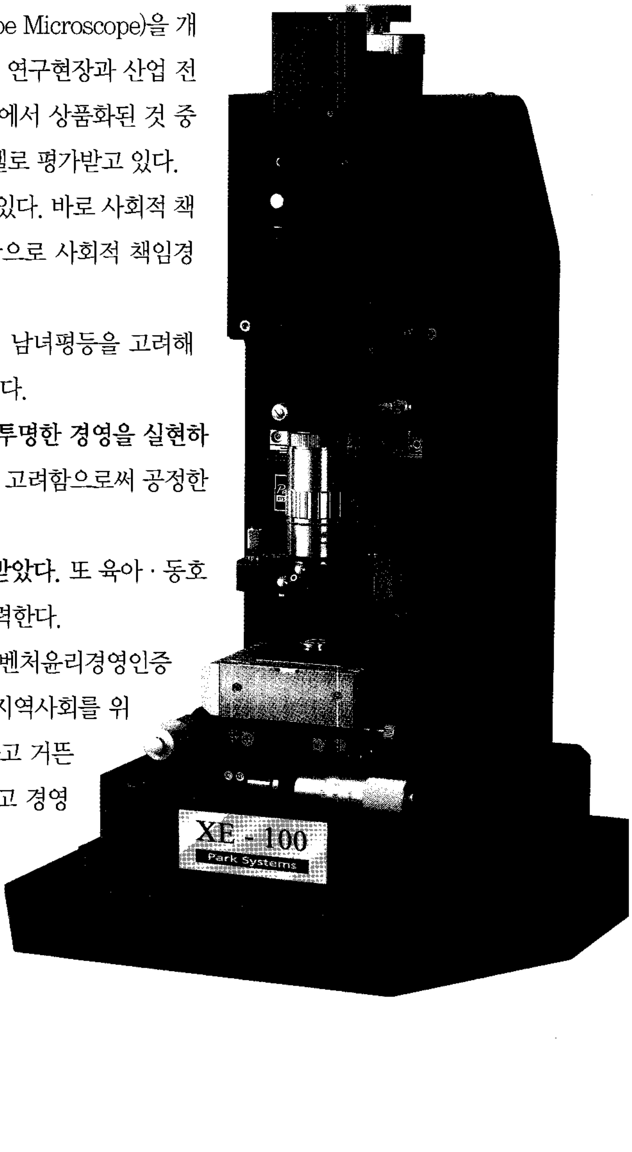
"사회적 책임경영은 기업의 기초의무"

Park SYSTEMS

㈜파크시스템스



㈜파크시스템스(대표 박상일)는 세계 정상의 기술을 보유한 원자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e)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원자현미경은 나노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첨단 계측장비로, 연구현장과 산업 전선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회사의 XE-Series 모델은 전 세계에서 상품화된 것 중 성능이 우수한 원자현미경으로, 기존 원자현미경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꾼 독창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XE-Series 모델만큼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이다. 파크시스템스는 창립 이래 투명경영 · 원칙주의 ·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첫째, 고용에 있어 정년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규직 직원은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남녀평등을 고려해 직원을 고용하며 업무에 있어서도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둘째, 경영에 있어서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시키고 전 직원에게 경영실적을 공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근무조건,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주주와 직원, 고객과 협력업체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공정한 경영을 내세우고자 한다.

셋째, 환경과 복지 측면에서는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에 힘써 ISO9001과 14001 인증을 받았다. 또 육아 · 동호회 활동 지원, 체육대회 · 등산 · 스키캠프 등을 통해 직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노력한다.

파크시스템스는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08년 1월 벤처산업협회가 선정한 국내 최초 '벤처윤리경영인증기업' 에 선정됐다.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와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종업원 관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세계SR표준의 깐깐한 평가지표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이 항목들을 통과했다. 파크시스템스 박상일 대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갖고 경영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와 충성도를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이는 곧 기업의 기초의무라고 말했다.